



양호했던 실적. ELS 과징금 환입도 소급적용될 전망

은행 Weekly | 2026.7.27

Analyst 최정옥,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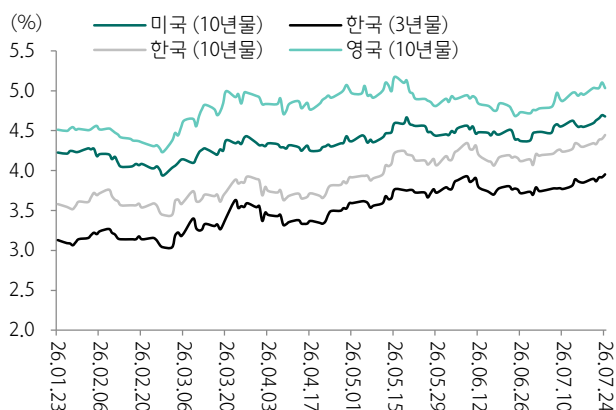
- 신한금융과 JKL파트너스 간 롯데손보 매각 협상에 난기류 감지. 협상이 지체되면서 롯데손보의 새주인 찾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 신한금융은 안정적인 CET 1 비율을 유지하고 EPS와 ROE가 개선되는 경우 M&A를 추진할 것이라 강조
- 금융당국은 얼라인파트너스의 BNK·JB금융 합병 요구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합병 추진시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하다고 강조. 두 금융사의 노동조합과 지역 경제계도 반대하고 있어 얼라인측의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쓸어담은 막대한 현금이 은행권 파킹상품으로 물리는 상황. 투자, 배당 등 대규모 자금 집행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언제든 꺼내쓸 수 있는 단기상품에 대규모 자금을 맡기고 있는 것
- 금융당국이 은행권 홍콩 ELS 불안전판매 과징금을 규모를 이번달 확정할 계획. 당초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던 과징금은 이후 열린 제재심에서 위법성 판단 기준 하향과 자율배상 노력이 반영되며 6,000억원까지 대폭 줄었고 추가 감경도 기대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6년 7월 24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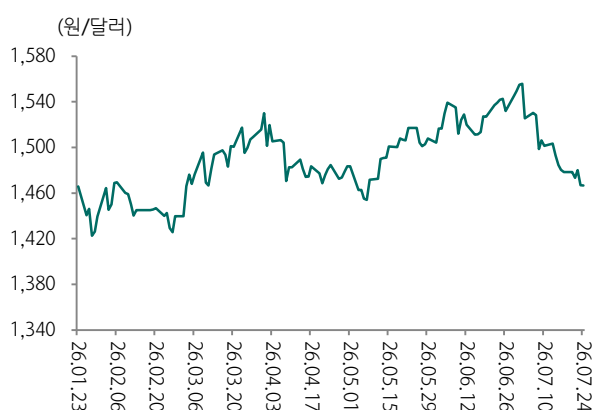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Weekly Net Buy (십억원)			
						1W	1M	3M	YTD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1.56	6.9	22.7		5,479,519.6	-1.9	-18.4	3.3	58.8	-3,378.3	170.0	2,932.6	422.4
은행	0.70	8.0	9.1	0.64	210,222.2	-3.5	9.4	2.6	28.2	-99.4	-50.3	158.4	-58.2
KB 금융	0.93	9.1	10.4	0.79	60,829.0	-5.3	11.6	9.0	37.5	-22.8	8.3	44.4	-16.4
신한지주	0.79	9.5	9.5	0.68	49,553.9	-3.2	6.9	4.4	35.8	-54.3	-24.2	58.3	-2.2
우리금융	0.55	7.1	8.2	0.52	22,461.6	-2.1	4.8	-12.0	10.2	-11.5	-2.8	3.8	2.6
하나금융	0.73	8.3	9.3	0.64	36,326.3	-3.2	14.6	7.4	40.7	-9.9	-30.4	42.6	-31.8
기업은행	0.45	6.1	7.6	0.55	17,025.0	-1.2	5.4	-4.5	1.9	-0.9	0.0	3.9	-3.4
BNK 금융	0.49	6.5	7.7	0.53	5,598.3	-1.6	7.9	-5.1	13.7	-0.1	-1.1	2.5	-2.5
iM 금융	0.44	6.0	7.5	0.47	2,890.1	-0.9	12.7	-4.5	17.4	5.7	2.9	-2.4	-4.6
JB 금융	0.76	6.6	12.1	1.00	5,017.4	-1.8	8.5	-6.3	4.9	-5.4	-3.1	5.4	0.0
카카오뱅크	1.48	18.3	8.3	0.72	10,520.5	-4.1	8.9	-12.8	2.1	-13.6	-14.0	13.0	0.6
삼성카드	0.62	8.8	7.2	1.97	5,653.9	3.7	4.8	-9.3	-12.7	-0.6	-0.9	2.7	-1.7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3.5% 하락해 KOSPI 하락률 1.9%에 비해 소폭 초과하락. 2분기 어닝시즌이 시작되었고, 전반적으로 대형 은행지주사들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던만큼 호실적을 차익실현의 기회로 삼는 모습. 특히 KB금융의 경우는 홍콩 ELS 과징금 환입 없이 2조원에 육박하는 순익을 시현했음에도 실적 발표 다음날인 금요일 장중 6%나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난 점도 이러한 유추를 뒷받침. 한편 거의 매일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은행주는 타업종대비 변동성이 매우 낮아 상대적인 안정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전주 미국 국채금리는 큰폭 상승.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고, 미국과 이란간 무력 충돌 리스크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있기 때문. 전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68%로 한주간 13bp 상승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4.34%로 16bp나 상승. 국내 국채금리도 상승세 지속. 3년물 국채금리는 3.96%로 한주간 11bp 추가 상승했고, 10년물은 4.45%로 15bp 추가 상승. 한편 원/달러 환율은 추가 하락. SK하이닉스 ADR 상장으로 인한 외환시장 달러 공급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 1,462.6원까지 낮아지며 한주간 23.4원 추가 하락. 외국인도 지난주 KOSPI와 은행주를 각각 2.9조원과 1,580억원 순매수한 반면 국내 기관은 KOSPI와 은행주를 각각 3.4조원과 990억원 순매도. 다만 금주부터 은행지주사들의 3분기 자사주 매입이 다시 재개될 예정
- 전주 특징주는 KB금융. 주가가 5.3% 하락해 하락 폭이 가장 컸는데 분기 2조원의 순익 시현에도 불구하고 NIM이 예상외로 하락한 점과 1,800억원의 주주환원 재원을 남겨 놓은 점에 대한 의구심 때문으로 보임.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sell on News 성격의 차익실현 물량 때문인 듯. 연초 이후 은행주가 시장에 비해서는 주가가 매우 부진했지만 7월에는 비교적 상당폭 초과상승했고, 여기에 KB금융의 multiple이 경쟁사들과 상당폭 벌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됨. 반면 삼성카드는 한주간 3.7% 상승해 유일하게 주가가 상승. 시장에 조정 양상이 나타나자 방어적 성격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
-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오는 29일 정례회의에서 홍콩 ELS 제재안을 최종 의결할 것으로 알려짐. 지난 14일 안건소위에서 은행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음. 금감원이 결정한 6,000억원의 과징금도 여전히 과도하다는 의견들이 있는 만큼 추가 감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한편 KB금융과 하나금융은 2분기 실적에서 ELS 과징금 환입을 인식하지 않은 반면 신한지주는 2분기 실적에 837억원을 환입. 신한지주에 대한 금감원 부과 금액이 580억원이었던 만큼 금감원 부과 기준으로 일단 환입한 듯. 만약 29일 금융위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경우 은행들은 관련 환입액을 2분기 실적에 모두 소급적용 예상
- 6월 월중 NIM이 크게 하락하면서 2분기 은행 NIM이 예상보다 다소 부진한 상황. 2분기 은행 평균 NIM은 전분기 수준에 그칠 전망. 다만 이는 기준금리 인상을 대비해 조달 규모를 확대한 일시적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따라서 3분기에는 다시 반등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우리는 기존에 2분기 중 NIM이 1~2bp 추가 상승한 후 법정비용 대출 가산금리 반영 금지와 주택신용보증 출연료를 개편 등으로 하반기에는 플랫해질 것으로 예상해 왔는데 기저효과가 발생한 만큼 하반기에도 소폭이나마 NIM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 한편 금주에는 기업은행과 IM금융, BNK금융의 실적 발표가 예정. 상기 은행들은 대형은행들과 달리 실적 측면에서의 기대감은 크지 않음 전망. 기업은행의 경우 중국법인의 금융사고액 중 일부를 2분기 실적에 반영할 공산이 크고, IM금융과 BNK금융도 비이자이익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다만 이들 은행들은 대형은행들과는 달리 주가상승률이 미미했던 만큼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불확실성 해소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음
-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주는 실적 안정성과 더불어 국채금리 상승 및 원/달러 환율 하락 등 매크로 지표도 우호적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편안한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 호실적을 차익실현의 기회로 보는 시각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7월 중 KOSPI를 30.3%p 초과상승했지만 연초 이후로는 여전히 30.6%p 초과하락하고 있고, 은행 평균 PBR도 0.7배로 가격 부담도 크지 않음. 중장기 종목으로 KB와 신한, 하나금융 등 대형은행지주사를 선호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부진했던 우리금융과 IM금융 등이 Gap 메우기 측면의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의견을 유지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우리금융(매수/TP 43,000원), IM금융(매수/TP 24,500원)

- 올해 KB와 신한, 하나금융 등이 35~40%의 주가상승률을 보인 반면 우리금융은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 10% 상승에 그침. 그러나 2분기에 다시 호실적을 시현했고, 현 PBR은 0.55배로 다소 지나치게 저평가. 가격 매력에 부각될 수 있는 시기
- IM금융도 실적 모멘텀은 크지 않지만 현 PBR 0.44배에 불과. 하반기 자사주 매입 규모 500억원 예상되어 주주환원 관련 모멘텀 발생 기대. CET 1 비율이 최대 관심사인데 3분기에는 12.3% 상회 예상. 동시에 밸류업 업그레이드 방안도 발표 전망

Global Peer Table

(2026년 7월 24일 종가 기준)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
KOSPI	1.56	6.9	22.7		5,479,519.6	-1.9	-18.4	3.3	58.8
은행	0.70	8.0	9.1	0.64	210,222.2	-3.5	9.4	2.6	28.2
KB금융	0.93	9.1	10.4	0.79	60,829.0	-5.3	11.6	9.0	37.5
신한지주	0.79	9.5	9.5	0.68	49,553.9	-3.2	6.9	4.4	35.8
우리금융	0.55	7.1	8.2	0.52	22,461.6	-2.1	4.8	-12.0	10.2
하나금융	0.73	8.3	9.3	0.64	36,326.3	-3.2	14.6	7.4	40.7
기업은행	0.45	6.1	7.6	0.55	17,025.0	-1.2	5.4	-4.5	1.9
BNK금융	0.49	6.5	7.7	0.53	5,598.3	-1.6	7.9	-5.1	13.7
IM금융	0.44	6.0	7.5	0.47	2,890.1	-0.9	12.7	-4.5	17.4
JB금융	0.76	6.6	12.1	1.00	5,017.4	-1.8	8.5	-6.3	4.9
카카오뱅크	1.48	18.3	8.3	0.72	10,520.5	-4.1	8.9	-12.8	2.1
삼성카드	0.62	8.8	7.2	1.97	5,653.9	3.7	4.8	-9.3	-12.7

미국

S&P 500	5.00	21.3	22.2	5.82	66,169.4	-0.6	0.8	3.7	8.3
은행	1.72	13.2	13.1	1.14	2,345.7	1.5	4.2	13.4	9.4
Wells Fargo	1.53	12.4	13.3	1.02	264.1	-1.4	2.4	9.3	-7.4
JPM	2.57	14.5	18.5	1.37	946.4	3.6	6.4	15.1	9.6
CITI	1.12	11.9	9.9	0.71	225.5	2.2	-7.9	3.8	13.3
BOA	1.53	13.4	12.1	0.99	440.3	1.3	7.5	19.8	12.8
US Bancorp	1.58	12.2	13.4	1.18	99.6	1.3	7.3	16.1	19.9
PNC	1.67	13.1	13.2	1.28	100.8	0.1	5.5	15.1	20.2
BB&T	1.05	11.3	9.6	1.06	64.5	-1.4	4.0	3.1	5.2

중국

상해A주지수	1.33	13.7	10.0	1.42	61,230.9	1.4	-6.6	-5.3	-3.9
은행	0.68	7.4	9.4	0.69	12,191.2	2.3	5.8	2.5	-5.7
공상은행	0.67	7.5	9.0	0.68	2,628.4	2.4	7.3	4.6	-2.3
건설은행	0.71	7.8	9.6	0.73	2,040.2	1.0	5.5	7.4	10.6
농업은행	0.79	8.2	9.8	0.59	2,282.3	4.2	5.0	-3.6	-13.3
중국은행	0.67	8.1	8.6	0.64	1,818.8	0.8	1.8	5.5	4.9
교통은행	0.51	6.6	7.8	0.62	597.5	3.1	8.9	3.4	-2.9
초상은행	0.83	6.6	12.9	1.13	1,002.0	3.1	9.5	2.3	-6.9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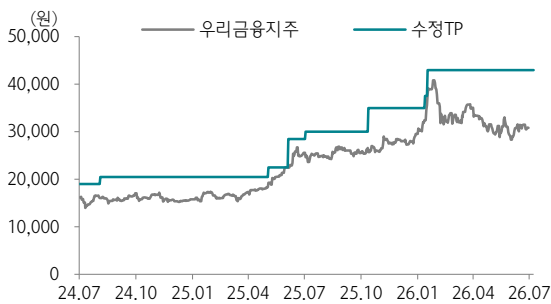
NIKKEI	2.81	22.4	12.3	4.34	1,027,886.8	0.7	-6.5	8.3	28.4
은행	1.58	16.3	9.6	0.48	149,178.7	7.9	14.1	33.0	48.6
Mitsubishi UHF	1.99	18.9	10.8	0.61	44,551.4	8.1	17.1	36.2	50.6
Sumitomo Mitsui Financial	1.75	17.3	10.8	0.61	27,408.7	6.5	12.7	33.9	42.1
Mizuho	1.92	17.8	11.4	0.43	21,135.4	9.1	12.0	34.6	51.8
Sumitomo Mitsui Trust	1.42	15.8	9.3	0.37	4,760.3	5.6	15.7	33.0	42.6

유럽

MSCI Europe	2.36	15.9	14.3	1.76	15,487.3	0.5	1.5	7.0	9.0
은행	1.53	11.4	13.6	0.73	2,177.2	2.4	5.4	19.9	18.6
HSBC	1.89	12.7	15.4	0.83	266.8	4.1	8.6	18.2	32.3
Santander	1.58	11.4	13.9	0.78	176.0	1.4	1.0	18.9	19.0
BNP Paribas	0.95	9.1	10.8	0.44	116.7	3.9	4.4	22.5	31.1
Credit Agricole	0.76	8.2	9.7	0.28	56.0	4.0	5.5	15.7	5.4
Deutsche	0.86	9.3	9.7	0.46	58.2	-1.2	1.6	16.5	-8.0
Unicredit	1.81	10.9	17.2	1.27	121.3	-0.2	3.4	25.7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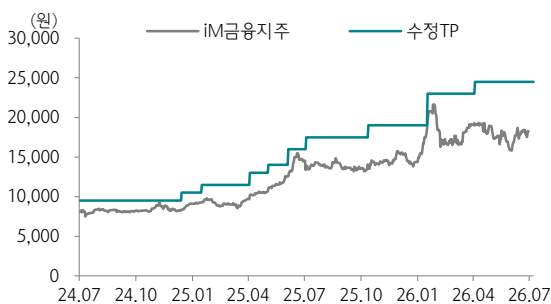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과리율

우리금융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11	BUY	43,000		
26.2.7	BUY	37,500	-6.47%	-5.07%
25.11.7	BUY	35,000	-19.83%	-7.29%
25.7.28	BUY	30,000	-15.26%	-10.50%
25.6.30	BUY	28,500	-13.16%	-6.14%
25.5.29	BUY	22,500	-7.11%	0.22%
24.8.29	BUY	20,500	-20.23%	-10.54%
24.3.21	BUY	19,000	-23.12%	-12.63%

iM금융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26.4.29	BUY	24,500		
26.2.11	BUY	23,000	-21.75%	-5.87%
25.11.7	BUY	19,000	-21.91%	-2.58%
25.7.29	BUY	17,500	-20.98%	-15.09%
25.6.30	BUY	16,000	-10.24%	-3.06%
25.5.29	BUY	14,000	-16.30%	-10.14%
25.4.29	BUY	13,000	-19.30%	-17.77%
25.2.10	BUY	11,500	-19.99%	-15.04%
25.1.8	BUY	10,500	-14.72%	-11.62%
24.6.25	BUY	9,500	-13.31%	-1.79%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 당사는 2026년 7월 27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6년 7월 27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 의견 비율공시

- 투자 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8.14%	1.86%	0.00%	100%

* 기준일: 2026년 7월 24일